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최남곤

02 3770 5604
namkon.choi@yuantakorea.com

RA 강순건

02 3770 5598
sungeon.kang@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KT	BUY (M)	46,000 (M)
LG 유플러스	BUY (M)	20,000 (M)
SK 텔레콤	BUY (M)	74,000 (M)
SK스퀘어	Not Rated (M)	- (M)

Weekly(2/27~3/3): 제 4 이동통신사업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 확인

투자자 및 글로벌 동향

- ▶ (수급) 기관투자자는 SK텔레콤 순매수, KT·LG 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투자자는 LG유플러스 순매수, SK텔레콤·KT순매도
- ▶ (주가 동향) SKT (+1.1%), KT (+0.0%), LGU+ (+0.9%)
- ▶ (글로벌) 중국 통신주 급등, 북미 통신주 하락 <China Unicom 급등 (+11.2%), AT&T 하락 (-3.0%)>

한 주간 Review 및 전망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요 내용

☞ 박윤규 2차관은 기존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 금융, 유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진입하기를 희망 → 대통령실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주문 이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지 표명

☞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위해 현재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현재의 통신 시장을 과점 형태의 경쟁 구조로 정의하고, 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진입 규제, 주파수 할당 및 이용제도, 망 관련 제도·규제, 도매제공, 이용제도, 단말기 유통 규제 및 단말기 지원 등에서 개선이 필요

▶ KT CEO 연임 불확실성 지속

☞ KT 이사회는 33명의 사내외 후보 가운데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Mass 총괄(사장) 등 전·현직 KT 임원 4명을 면접 대상으로 확정

☞ 박성중 간사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은 KT CEO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에는 '스튜어드십코드' 발동 주문 → 검·경 수사로 구 대표와 현재 KT 경영진·이사회를 압박하고 국민연금이 KT 이사회가 최종 추천하는 후보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

☞ KT 측에서는 7일 차기 대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 하지만 정치권의 지속된 압박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 배제 못함. 당분간 불확실성 지속 전망

주간 통신업 주요 뉴스 (2.27~ 3.3)

<주간 통신업 주요 뉴스>

▶ [why] 윤대통령 추진 '제4 통신사' 왜 어렵나? (주간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갑질'을 민생 문제로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책은 '제4통신사'의 등장이다. 이를 참고하기에 좋은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 또한 제4통신사를 도입했으며 그 기업은 라쿠텐 모바일이다. 우리 쪽 후보군 중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곳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인 것도 이러한 사례에서 기인하고 있다. 라쿠텐모바일이 통신 시장에 진입한 후 저가 요금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일본 통신사 간의 경쟁이 촉발되었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통신 시장 진출을 부인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우리가 이전부터 관심 있는 것은 자급제 폰 유통과 요금제를 함께 설계해 주는 개인 맞춤 솔루션 쪽이다'라고 말했다.

▶ 세종텔레콤 회장 "암묵적 카르텔로 제4이통사 진입 어려워" (연합뉴스)

김현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암묵적인 카르텔로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라며 'SK 텔레콤, LG 유플러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외, 해외 사업자 진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나왔다. 한편 매출 비용이 큰 통신 시장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쟁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주간 KT 주요 뉴스>

▶ CEO 후보 '내부 출신' 채운 KT에...대통령실 · 與 "그들만의 리그" (한국경제)

대통령실이 2일 KT 의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을 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공개 비판했다. KT 차기 CEO 인선을 위해 구성된 지배 구조위원회가 외부 출신 인사 없이 전·현직 임원 네 명으로만 CEO 후보자를 압축하자 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번 후보 선정의 기준으로 자문단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테크놀로지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을 주도할 매니지먼트 리더십'을 꼽았다.

▶ 주가 16% 넘게 빠진 KT... '구현모 연임 포기 약재' (한경코리야마켓)

정부가 회사 대표 인사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KT 의 향후 실적이 불확실해졌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월 27일 기준 KT 의 주가는 관치 논란이 시작된 1월 말과 비교 시 16% 넘게 하락했다. KT 의 주가가 3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 KT 스튜디오지니, 아마존 프라임과 '보라! 데보라' 콘텐츠 공급계약 (조선비즈)

KT 스튜디오지니가 아마존의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글로벌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T 스튜디오지니로서는 최초의 월드 와이드 협업 사례이다. 윤상일 KT 스튜디오지니 해외 사업 팀장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월드 와이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많이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 SK 텔레콤 주요 뉴스>

▶ SK 텔레콤, '이프랜드' 미주·유럽·동남아 진출 본격화 (전자신문)

SK 텔레콤이 글로벌 통신사와 미주·유럽·동남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데 이어 글로벌 통신사와 각 국가에 최적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영상 SK 텔레콤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해 SK 텔레콤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언론자료

통신업종 주간 동향 (2.27 ~ 3.3)

Valuation 비교

	PER 2023E	PBR 2023E	ROE 2023E	Mkt. Cap (bn USD)
KOSPI	13.9	0.9	6.6	1,410.7
통신업	7.5	0.6	8.2	17.2
SK 텔레콤	10.2	0.9	8.6	7.5
KT	6.9	0.5	7.6	6.0
LG 유플러스	6.5	0.6	8.9	3.7
NTT	11.4	1.6	14.3	103.6
KDDI	13.0	1.7	13.4	67.1
Softbank Group	102.1	0.8	0.9	70.2
Softbank Corp	13.1	3.8	30.4	53.5
China Unicom	8.9	0.5	5.4	23.7
China Mobile	8.4	0.9	10.6	170.1
China Telecom	10.8	0.8	7.1	78.0
AT&T	7.7	1.2	16.8	133.0
Verizon	8.2	1.6	20.6	161.3
Chunghwa Telecom	24.1	2.4	10.3	29.5
Taiwan Mobile	23.3	4.1	17.7	11.1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가 Data

	Performance(%)					최근 5영업일 순매수 (십억원)		
	1W	1M	3M	6M	1Yr	기관	외국인	개인
KOSPI	0.3	-1.9	-0.1	0.9	-11.5	-162.1	-468.4	511.5
통신업	0.7	-5.0	-12.7	-12.7	-12.9	-6.1	-59.9	64.6
SK 텔레콤	1.1	-1.6	-9.3	-13.3	-16.9	31.4	-23.8	-7.4
KT	0.0	-11.2	-18.7	-16.9	-4.4	-28.2	-52.2	78.9
LG 유플러스	0.9	-0.7	-8.6	-3.0	-16.6	-9.4	16.2	-6.9
NTT	0.2	4.1	7.1	5.8	17.8			
KDDI	0.3	3.5	1.1	-5.4	6.0			
Softbank Group	-0.7	-12.2	-8.2	1.1	6.6			
Softbank Corp	-0.1	4.3	4.8	1.2	5.3			
China Unicom	11.2	12.8	39.0	71.8	49.3			
China Mobile	7.0	9.3	20.7	19.6	17.3			
China Telecom	8.2	7.4	34.8	59.2	37.9			
AT&T	-3.0	-5.9	-1.9	8.6	3.4			
Verizon	-0.9	-7.5	0.6	-7.0	-29.7			
Chunghwa	1.7	4.0	4.9	-2.9	-4.1			
Taiwan Mobile	0.6	2.1	2.7	-1.0	-7.8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peer group Valuation

(단위: 배, %)

	PER		PBR		EV/EBITDA		Dividend Yield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SK 텔레콤	10.2	9.9	0.9	0.8	3.4	3.1	7.3	7.3
KT	6.9	7.0	0.5	0.6	2.4	2.8	6.9	7.2
LG 유플러스	6.5	6.3	0.6	0.5	3.1	2.8	6.8	7.7
NTT	11.4	10.8	1.6	1.5	7.0	6.8	3.1	3.3
KDDI	13.0	12.2	1.7	1.6	5.9	5.8	3.3	3.6
Softbank Group	102.1	24.2	0.8	0.8	15.5	16.8	0.8	0.8
Softbank Corp	13.1	15.1	3.8	3.6	7.4	7.8	5.8	5.6
China Unicom	8.9	8.0	0.5	0.5	1.3	1.2	5.7	6.7
China Mobile	8.4	7.9	0.9	0.9	2.4	2.3	8.2	8.8
China Telecom	10.8	9.6	0.8	0.7	3.8	3.5	6.4	7.4
PCCW	63.9	40.0	4.4	4.3	6.4	6.1	9.6	9.8
Singtel	17.4	15.0	1.4	1.3	12.2	11.6	5.4	5.2
AT&T	7.7	7.4	1.2	1.2	6.4	6.2	6.0	6.0
Verizon	8.2	8.2	1.6	1.4	6.5	6.4	6.9	7.0
Chunghwa	24.1	23.2	2.4	2.5	10.2	10.0	4.1	4.2
Taiwan Mobile	23.3	22.0	4.1	4.1	11.4	11.1	4.5	4.6
Telstra	24.8	22.5	3.0	3.0	8.2	7.8	4.2	4.4
Vodafone	10.8	11.5	0.6	0.6	6.3	6.5	8.0	7.8
Deutsche	13.1	11.5	2.1	2.0	7.1	6.7	3.5	4.0
Telefonica	11.7	10.6	0.9	0.9	5.2	5.1	7.6	7.6
Telecom Italia	306.7	61.3	0.4	0.4	6.4	6.2	1.0	1.3
Telenor	17.2	15.2	4.4	4.8	6.5	6.5	7.8	7.8
Teliasonera	17.9	15.3	1.7	1.7	6.6	6.4	7.5	7.7
Average	32.1	16.3	1.7	1.7	6.6	6.5	5.7	5.9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arnings Estimate

(단위: 십억원)

SK 텔레콤 결산(12월)	2020A	2021A	2022P	2023F	2024F	KT 결산(12월)	2020A	2021A	2022P	2023F	2024F
	매출액	16,088	16,749	17,305	17,641		17,889	매출액	23,917	24,898	25,650
영업이익	1,249	1,387	1,612	1,743	1,811	영업이익	1,184	1,672	1,690	1,761	1,827
지배주주순이익	1,504	2,408	912	998	1,034	지배주주순이익	658	1,357	1,263	1,279	1,262
증가율	69%	60%	-62%	9%	4%	증가율	7%	106%	-7%	1%	-1%
PER	11.9	8.6	12.9	10.3	9.9	PER	9.4	5.8	7.4	7.0	7.1
PBR	0.7	1.1	0.9	0.9	0.8	PBR	0.4	0.5	0.5	0.5	0.6
EV/EBITDA	5.4	3.6	3.5	3.4	3.1	EV/EBITDA	2.4	2.4	2.6	2.4	2.8
ROE	6.4	13.6	7.9	8.6	8.6	ROE	4.8	9.4	8.0	7.6	7.7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arnings Estimate

(단위: 십억원)

LG 유플러스					
결산(12월)	2020A	2021A	2022P	2023F	2024F
매출액	13,418	13,851	13,906	14,203	14,523
영업이익	886	979	1,081	1,164	1,188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467	712	663	746	762
증가율	6%	53%	-7%	12%	2%
PER	11.5	8.5	8.4	6.5	6.3
PBR	0.7	0.8	0.6	0.6	0.5
EV/EBITDA	4.0	3.5	3.2	3.1	2.8
ROE	6.5	9.5	8.3	8.9	8.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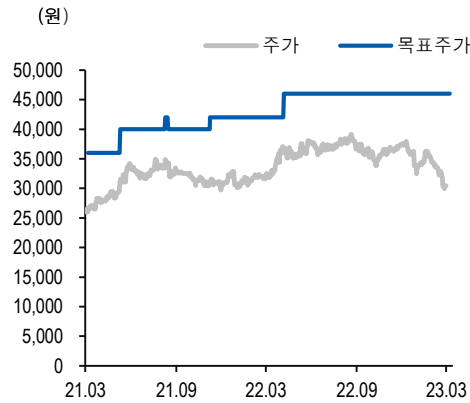
통신사 실적 전망 및 컨센서스 비교

(단위: 십억원)

매출액	1Q 22	2Q 22	3Q 22	4Q 22P	1Q 23E	2Q 23E	3Q 23E	4Q 23E	QoQ	YoY	컨센서스	대비
SK 텔레콤	4,277	4,290	4,343	4,395	4,378	4,355	4,411	4,497	0%	2%	4,410	-1%
KT	6,278	6,312	6,477	6,583	6,458	6,433	6,613	6,690	-2%	3%	6,462	0%
LG 유플러스	3,410	3,384	3,501	3,611	3,502	3,458	3,576	3,668	-3%	3%	3,525	-1%
영업이익	1Q 22	2Q 22	3Q 22	4Q 22P	1Q 23E	2Q 23E	3Q 23E	4Q 23E	QoQ	YoY	컨센서스	대비
SK 텔레콤	432	460	466	255	469	482	499	293	84%	8%	466	1%
KT	627	459	453	151	528	526	464	243	249%	-16%	542	-3%
LG 유플러스	261	248	285	287	284	286	297	297	-1%	9%	289	-1%
영업이익률	1Q 22	2Q 22	3Q 22	4Q 22P	1Q 23E	2Q 23E	3Q 23E	4Q 23E				
SK 텔레콤	10%	11%	11%	6%	11%	11%	11%	7%				
KT	10%	7%	7%	2%	8%	8%	7%	4%				
LG 유플러스	8%	7%	8%	8%	8%	8%	8%	8%				
세전계속사업이익	1Q 22	2Q 22	3Q 22	4Q 22P	1Q 23E	2Q 23E	3Q 23E	4Q 23E	QoQ	YoY	컨센서스	대비
SK 텔레콤	327	403	362	144	408	421	428	182	183%	25%	417	-2%
KT	642	540	439	273	560	556	481	257	105%	-13%	575	-3%
LG 유플러스	229	214	223	191	245	255	260	214	28%	7%	249	-2%
지배주주귀속순익	1Q 22	2Q 22	3Q 22	4Q 22P	1Q 23E	2Q 23E	3Q 23E	4Q 23E	QoQ	YoY	컨센서스	대비
SK 텔레콤	211	254	235	213	284	293	295	126	33%	34%	309	-8%
KT	410	313	298	242	357	323	326	274	48%	-13%	429	-17%
LG 유플러스	170	162	167	164	181	191	197	177	10%	6%	193	-6%

주: 컨센서스 및 연도별, 분기별 변화율 1Q23 기준

KT (0302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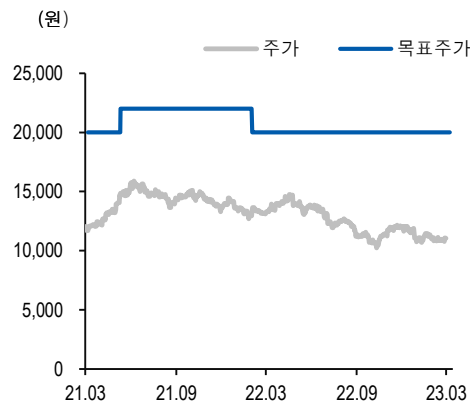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06	BUY	46,000	1년		
2022-04-08	BUY	46,000	1년		
2021-11-10	BUY	42,000	1년	-23.73	-11.67
2021-08-17	BUY	40,000	1년	-20.02	-14.25
2021-08-11	BUY	42,000	1년	-18.63	-18.57
2021-05-12	BUY	40,000	1년	-17.76	-12.75
2021-03-09	1년 경과 이후		1년	-21.84	-15.28
2020-03-09	BUY	36,000	1년	-32.45	-15.28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LG 유플러스 (032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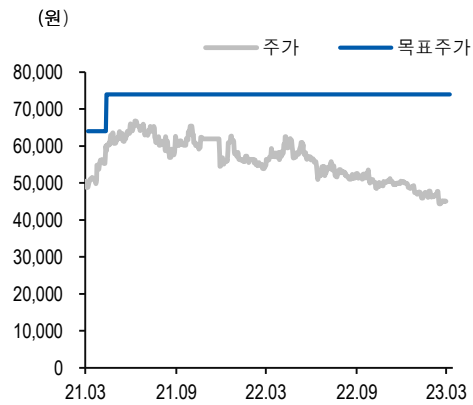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06	BUY	20,000	1년		
2023-02-03	1년 경과 이후		1년	-45.38	-44.30
2022-02-03	BUY	20,000	1년	-38.17	-26.25
2021-05-13	BUY	22,000	1년	-35.17	-27.73
2021-05-11	1년 경과 이후		1년	-27.00	-27.00
2020-05-11	BUY	20,000	1년	-38.84	-26.50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SK 텔레콤 (0176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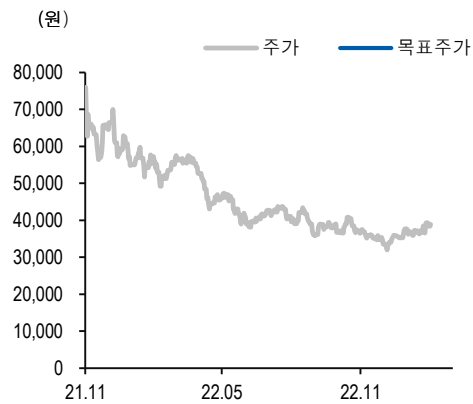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06	BUY	74,000	1년		
2022-04-14	1년 경과 이후		1년	-30.32	-16.22
2021-11-29	BUY	74,000	1년	-24.06	-9.73
2021-04-14	BUY	74,000	1년	-18.51	-9.73
2021-01-11	BUY	64,000	1년	-19.83	-6.2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SK 스퀘어 (4023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06	Not Rated	-	1년		
2022-12-06	1년 경과 이후		1년		-
2021-12-06	Not Rated	-	1년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최남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